

이 자료는 2009년 9월 9일(수)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KDI 경제전망 수정

2009. 9

2008. 9. 8.(화)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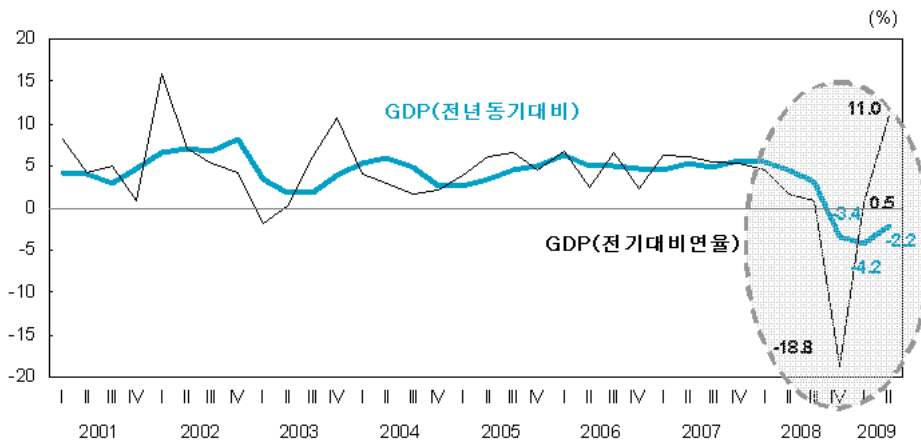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감소세가 완화됨과 동시에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의 개선 추세도 지속되면서 경기가 회복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모습
- 대내외 경제 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호전됨에 따라, 우리 경제의 성장률도 당초 전망에 비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금년도 성장률은 -1%를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내년에는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 해소와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교역여건 개선 등으로 내수와 수출이 정상화되면서, 4%대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 최근 우리 경제는,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회복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국내외 금융시장의 안정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금년 들어 급락세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던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2/4분기에 전기대비 2.6%(연율 11.0%)를 기록하는 등 예상보다 빠른 개선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전년동기대비로는 2/4분기의 성장률이 마이너스(-2.2%)로서 국내 경기가 국제금융위기 발생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위축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나, 1/4분기(-4.2%)보다는 크게 상승한 것으로서 경기가 회복국면에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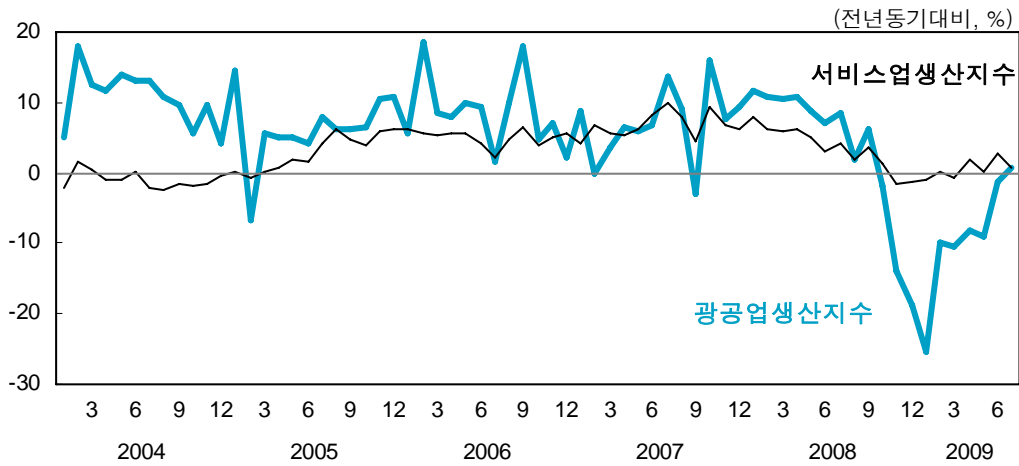
GDP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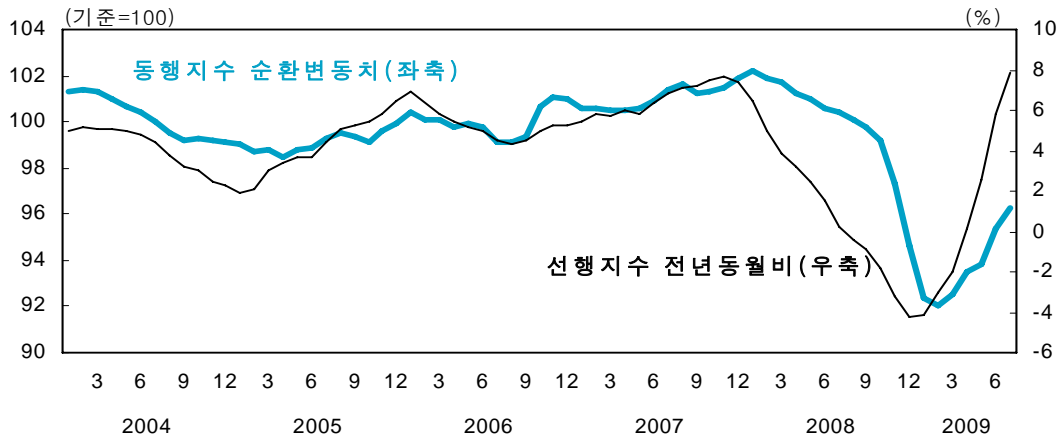
● 3/4분기에 들어서도 광공업생산이 증가세를 유지하는 등 전반적인 생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경기동행지수 및 경기선행지수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음.

- 광공업생산의 경우, 상반기의 증가세가 7월에도 이어지면서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이 10개월만에 플러스(0.7%)로 전환되는 등, 국제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상승
- 서비스업생산은 7월에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2/4분기 이후의 플러스 증가율을 유지

광공업생산 및 서비스업생산



동행지수와 선행지수



- 이와 같이 광공업 생산의 견실한 증가세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최근의 경기 개선 추세는, 작년 10월 이후의 수출 감소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완화되고 있는데 주로 기인
 -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대상국의 수요가 개선되면서, 우리 경제의 수출 감소세가 4월 이후 완화되는 모습을 지속
 - 2/4분기 수출(물량 기준)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3.9%로 국제금융위기 발생 이전보다 여전히 위축된 상황이나, 전기대비로는 전분기(-4.3%)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10.9%를 기록하여 수출 개선 추세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
 - * 수출 (국민계정, 전기대비, %): (08.4/4) -8.9 → (09.1/4) -4.3 → (2/4) 10.9
 - * 수출 (국민계정, 전년동기대비, %): (08.4/4) -6.9 → (09.1/4) -10.6 → (2/4) -3.9
 - 이와 같은 수출의 개선은, 상반기에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었던 선박수출과 중국의 내수부양책에 따른 LCD 등의 대중국 수출 증가에 의해 주도되었음.
 - * 선박수출의 경우, 과거 확보된 수주물량을 바탕으로 금년 상반기중 전년동기대비 31.9% 증가했는데, 선박수출의 호조세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 LCD 수출은 중국 정부의 내수부양 조치인 지덴샤상(家電下鄉)정책의 결과 상반기중 대중국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44.1% 증가
 - 7월과 8월의 총수출(금액 기준) 감소폭이 다소 확대되었으나, 선박수출의 일시적 감소 및 작년 상반기의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서, 전반적인 수출 개선 추세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총수출(금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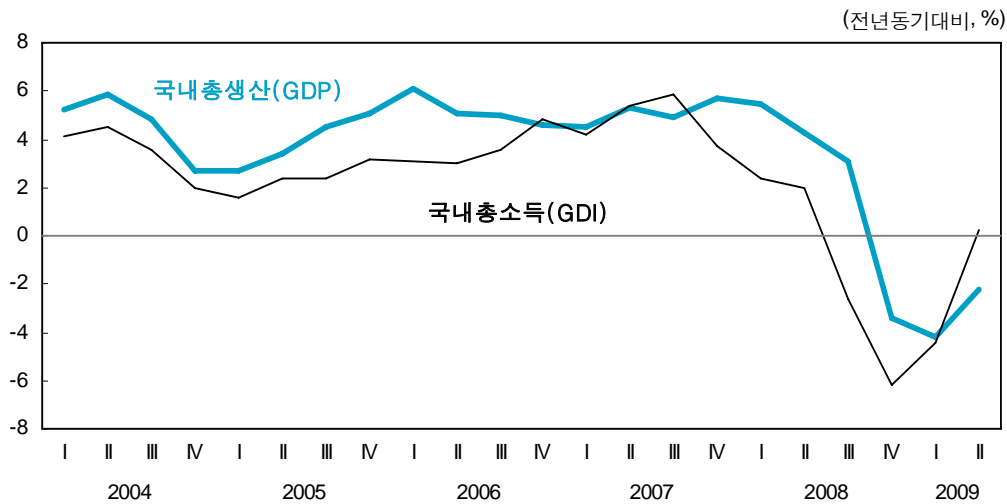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2008년				2009년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총수출	17.4	23.1	27.0	-9.9	-25.2	-20.5	-21.8	-20.6
선박제외 총수출	17.2	23.2	21.9	-16.2	-30.7	-25.4	-23.4	-19.1
선박 및 석유제품 제외 총수출	14.3	17.8	14.3	-16.3	-29.8	-22.2	-18.5	-15.4

■ 자산가격과 원화가치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교역조건이 개선됨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실질구매력(GDI)이 강화되었던 것도, 내수 위축을 완화시키면서 경기를 빠르게 개선시키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

-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이 완화되는 가운데, 저금리 정책기조가 유지되면서 기업 투자 여건이 개선되었으며, 주택가격 및 주가 등 자산가격 회복세도 민간소비 및 투자의 극심한 위축을 완화시키는 데에 기여
- 국제금융시장의 안정 및 경상수지 흑자 지속에 따라 원화가치가 부분적으로 회복(환율 하락)되고 교역조건이 개선됨에 따라, 국내총소득(GDI)이 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정도로 증가한 것도 민간소비 등 내수 경기를 개선시킨 요인

국내총생산(GDP)와 국내총소득(G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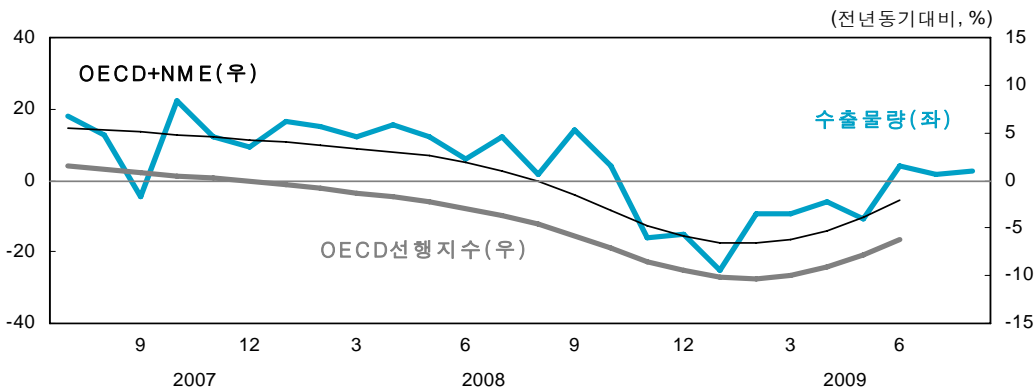


- 한편, 작년 하반기 이후 큰 폭으로 확대된 재정지출이 확장적 통화정책과 병행되면서, 거시경제에 대한 재정정책의 파급효과가 예상보다 크고 신속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내수 회복세를 강화시키는 추가적인 요인으로 작용
 - 상반기 조기집행의 영향으로 하반기에는 재정여력이 약화되었으나, 상반기 재정지출 확대의 파급효과가 하반기에 일부 이연되고 민간부문의 소비 및 투자도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 이와 같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호전됨에 따라, 우리 경제의 성장률도 당초 전망(2009년 5월 KDI 경제전망 기준, 2009년 -2.3%, 2010년 3.7%)에 비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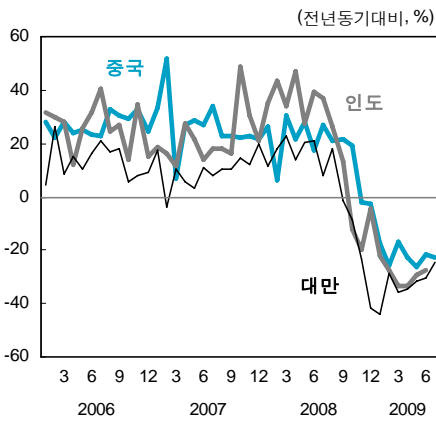
- 세계경제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 등 개도국들의 경기가 상대적으로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우리 경제의 수출 회복세도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
 - 수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OECD 선행지수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중국을 비롯한 주요 수출대상국들의 경기 개선도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

수출물량(선박 제외) 및 OECD선행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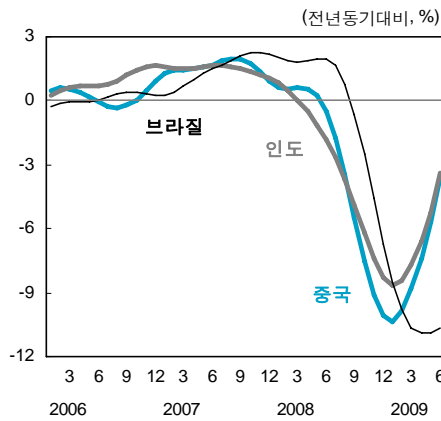


주: 1) 수출물량=선박제외 총수출액/수출단가 (단, 수출단가는 6월까지만 발표된 관계로 7~8월중에는 수출물가(달러기준)와 동일한 추세를 보인다고 가정).
 2) NME(Non-member Major Economy): 중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개도국의 수출



주요 개도국의 경기선행지수



- IMF를 비롯한 주요 전망기관들은, 세계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이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개도국과 신흥시장국의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됨에 따라 이들 국가에 대한 금년과 내년의 성장률 전망은 상향 조정하는 추세

* 최근에는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2/4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게 발표되는 등 경기 급락세가 진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이들 국가와 세계경제의 성장률 전망도 상향 조정될 가능성

주요국의 2009년도 경제성장률 전망 (IMF)

(%)

전망시점	World	미국	유로	일본	중국	NIEs ¹⁾	한국
2009년 4월	-1.3 [1.9]	-2.8 [0.0]	-4.2 [-0.4]	-6.2 [0.5]	6.5 [7.5]	-5.6 [0.8]	-4.0 [1.5]
2009년 7월 ²⁾	-1.4 [2.5]	-2.6 [0.8]	-4.8 [-0.3]	-6.0 [1.7]	7.5 [8.5]	-5.2 [1.4]	-1.8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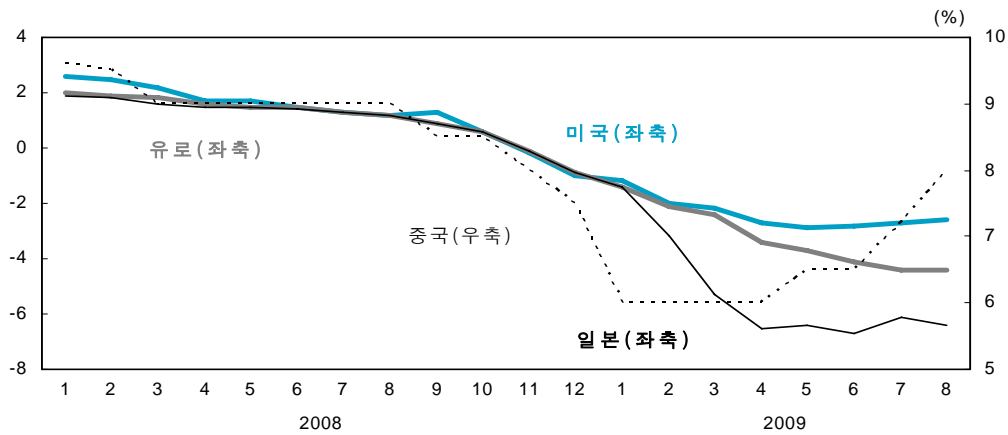
주: 1) Newly Industrialized Asian Economies: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2) 한국의 경우 2009년 8월 시점의 전망치.

3) []안은 2010년 전망치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January · April · July 2009 등.

주요국의 2009년도 경제성장률 전망 수정 추이 (EI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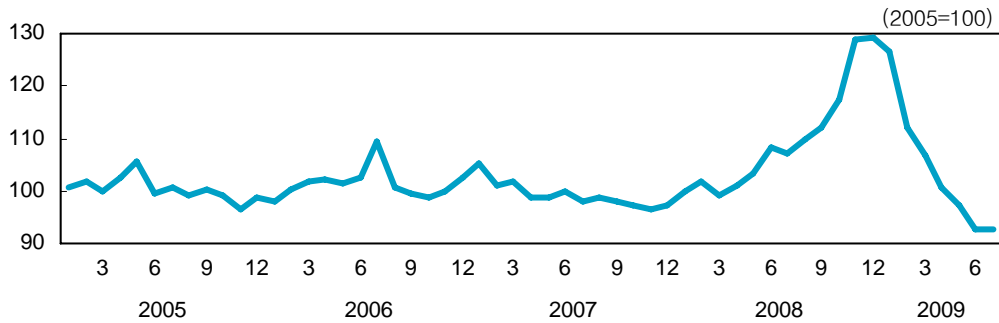
주: 가로축은 2009년 성장률 전망이 발표된 전망시점.

자료: EIU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한편, 유가 급등 및 국제금융시장 불안 재현, 급격한 신종플루 확산 등 예기치 못한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나, 전반적인 세계경제의 개선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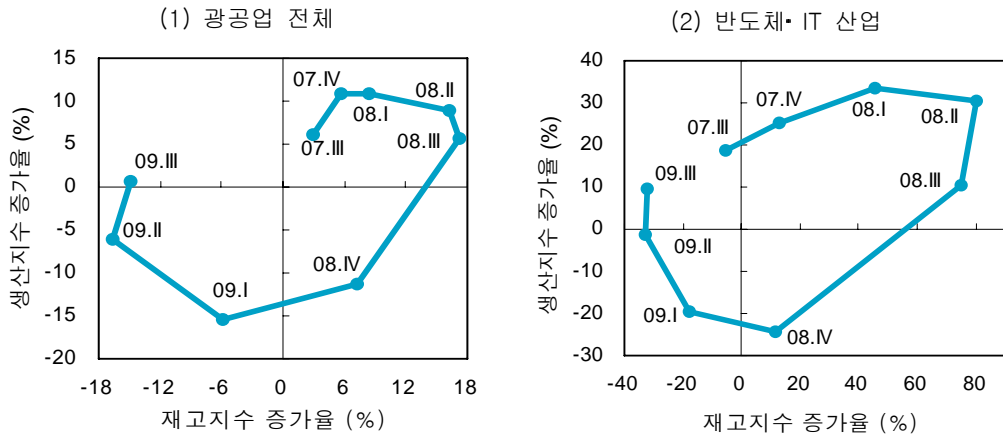
- 이와 더불어, 기업들의 재고 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대내외 수요 증가가 견실한 생산 증가세로 이어지는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작년 4/4분기 이후 금융위기 상황에서, 기업들의 생산이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재고도 빠르게 조정되어 왔는데, 이는 성장률에 상당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 재고증감 성장기여도(전기대비, %p): (08.4/4) -3.0 → (09.1/4) -3.3 → (2/4) -2.1
 - 그러나 6월 이후 생산자제품 재고가 증가세로 반전한 모습인데, 이와 같은 재고 조정은 향후 생산을 증가시키고 성장률을 견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재고율지수 (재고/출하 비율)



- 생산·재고 순환도,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고 수출과 내수 등 대내외 수요 증가가 생산 증가로 이어지면서, 향후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가 진행될 것임을 시사

생산·재고 순환



주: 2009년 3/4분기는 7월 수치임.

-
- 따라서 향후 거시경제 정책은, 최근의 경기 회복세가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위기국면에서 회복국면으로의 전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될 필요
 - 국제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되었던 확장적인 거시경제 정책은, 상반기의 성장률 급락을 완충하는 데에 성공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하반기에도 대외 경제여건의 하방위험에 대비하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장기적인 목표와 연계하여 거시경제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필요
 - 따라서 향후 거시경제 정책기조는, 경기 회복세에 대한 판단에 기초하여 위기관리 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
 - 우선적으로는, 국제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게 취해졌던 비정상적 정책조치들 중에서 시장을 왜곡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조치들을 철회하는 과정이 필요
 - 재정정책의 경우, 재정 확대의 고착화로 인해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시적 재정지원 사업들을 계획에 맞추어 폐지하는 한편,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노력을 지속
 - 통화 및 금융정책은, 최근의 단기 유동성 증가세가 자산가격 급등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향후 경기 회복세가 물가 상승세를 확대시키지 않으면서 안정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
 - G20 정상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하며 균형 있는 세계경제 성장을 위한 거시경제 정책의 공조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강화

II

2009~10년 국내경제 전망

1. 대외 여건에 대한 주요 전제
2. 2009년 국내경제 전망
3. 2010년 국내경제 전망

1. 대외 여건에 대한 주요 전제

- **세계경제:** 2009년 하반기부터 경기 하락세가 진정되고, 2010년에는 본격적인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제
 - 주요국들의 적극적인 경기안정화 대책의 효과로 인해 세계경제는 금년 하반기부터 침체상태에서 회복되며, 2010년에는 2% 중후반대의 성장률(IMF의 PPP환율 기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제
- **유가:** 2009년 원유도입단가는 2008년에 비해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여 연평균 배럴당 60달러 내외를 기록하며, 2010년에는 세계경제의 회복에 따라 점진적인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제
- **실질실효환율:**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가치는 상반기의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이를 유지할 것으로 전제
 - 2010년 통화가치(실질실효환율 기준)는 대내외 경제여건이 정상화되면서 변동성이 축소됨과 더불어 점진적으로 상향 안정화되는 추이를 지속할 것으로 전제

2. 2009년 국내경제 전망

- **경제성장률**은 대외 경제여건의 개선 및 경기안정화 정책의 효과 등으로 인해 -1%를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4분기 이후 우리 경제는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경기침체 국면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점진적인 회복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민간소비는 저금리, 물가안정 및 실질구매력 개선 등에 기인하여 소득 증가세와 유사한 수준의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0% 내외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
 - 설비투자는 국내외 금융시장 안정 및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등으로 완만하게 개선되면서 당초 전망(-16.0%)보다는 높은 -10% 내외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

- 건설투자는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공공 및 토목부문의 투자 증가에 기인하여 당초 전망(2.3%)보다 다소 높은 4%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상품수출(물량기준)은 최근의 개선 추세가 유지됨에 따라 당초 전망(-9.8%)보다 높은 -2% 내외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
 - 상품수입(물량기준)도 내수경기 개선 및 원화가치 상승 등의 영향으로 당초 전망(-10.0%)보다 높은 -4% 내외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
- 경상수지는 원자재 가격의 안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이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300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의 흑자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 상품수지는 흑자규모가 2008년(60억달러)보다 대폭 확대되어 4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수출(달러금액)은 수출물량 및 단가의 감소세가 완화되면서 당초 예상(-18.5%)보다 상승한 -14%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수입(달러금액)은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안정에 주로 기인하여 당초 예상(-24.1%)과 유사한 -23%대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서비스·소득·경상이전수지는 적자규모가 2008년(124억 달러)에 비해 소폭 확대된 15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실업률은 경기침체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3.8% 내외까지 상승하겠으나, 취업자 수는 감소폭이 점차 축소되면서 연평균 10만명 내외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점진적으로 안정세를 나타내면서, 2009년 연평균으로 2%대 후반을 기록할 전망
- 근원물가의 경우, 소비자물가보다 둔화세가 천천히 나타남에 따라 연간으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3%대 중반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3. 2010년 국내경제 전망

- 세계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10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4% 내외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민간소비는 환율, 물가 및 고용상황 등 경제여건이 안정됨에 따라 소득증가율과 유사한 수준의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 설비투자는 2009년에 급속히 위축되었던 설비투자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비교적 큰 폭의 증가세가 예상
 - 건설투자는 공공부문의 투자가 유지되는 가운데, 민간 건설부문의 부진이 점차 개선되면서 2009년의 증가세를 유지하는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
 - 상품수출(물량기준)은 세계경제 회복이 예상되는 가운데, 2009년의 기저효과에 기인하여 7%대 중반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상품수입(물량기준)은 원화가치의 안정 및 내수경기 회복 등에 기인하여 10%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경상수지**는 수출부문에서 상당한 수준의 회복이 예상되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흑자규모가 2009년보다 축소된 15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전망
 - 상품수지는 흑자규모가 2009년 수준보다 축소되어 36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서비스·소득·경상이전수지는 적자규모가 금년에 비해 다소 확대된 200억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실업률**은 경기회복에 따라 고용여건이 점차 개선되면서 3.5% 수준으로 낮아지고 취업자 수는 20만명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환율 안정 등의 영향으로 2009년과 유사한 2%대 후반 수준을 유지할 전망

2009~10년 경제전망

(전년동기대비, %, 억달러)

	2008	2009					2010
	연간 ^p	1/4	2/4 ^p	3/4	4/4	연간	연간
국내총생산 (전기대비)	2.2	-4.2 (0.1)	-2.2 (2.6)	-1.4 (1.4)	4.9 (0.7)	-0.7	4.2
총소비	1.6	-2.0	0.9	1.6	6.3	1.7	4.5
민간소비	0.9	-4.4	-0.8	0.2	6.2	0.2	4.2
총고정투자	-1.7	-8.1	-2.7	-1.2	7.6	-0.7	6.0
설비투자	-2.0	-23.5	-15.9	-11.0	14.0	-9.6	13.8
건설투자	-2.1	1.6	3.7	3.8	5.7	3.9	2.0
총수출(물량)	5.7	-10.6	-3.9	-4.3	9.9	-2.3	6.6
상품수출(물량)	4.1	-14.1	-4.2	-3.9	14.2	-2.2	7.6
총수입(물량)	3.7	-18.2	-13.7	-5.0	22.1	-4.2	10.3
상품수입(물량)	4.6	-17.4	-14.3	-4.6	21.9	-4.1	9.8
경상수지	-64	86	132	60	33	311	153
상품수지	60	83	176	110	93	463	363
수출(금액)	4,334	782	897	955	1,094	3,728	4,312
(증가율)	(14.4)	(-24.0)	(-24.1)	(-18.5)	(15.0)	(-14.0)	(15.7)
수입(금액)	4,274	699	721	845	1,000	3,265	3,949
(증가율)	(22.3)	(-32.9)	(-35.9)	(-30.0)	(11.0)	(-23.6)	(21.0)
서비스·소득· 경상이전수지	-124	2	-45	-50	-60	-152	-210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4.6 (4.3)	3.9 (4.9)	2.8 (3.9)	2.1 (3.0)	2.2 (2.2)	2.8 (3.5)	2.7 (2.5)
실업률 (계절조정)	3.2	3.8 (3.5)	3.8 (3.9)	3.7 (3.8)	3.7 (3.7)	3.8	3.5

주: 1) p는 잠정실적치(preliminary)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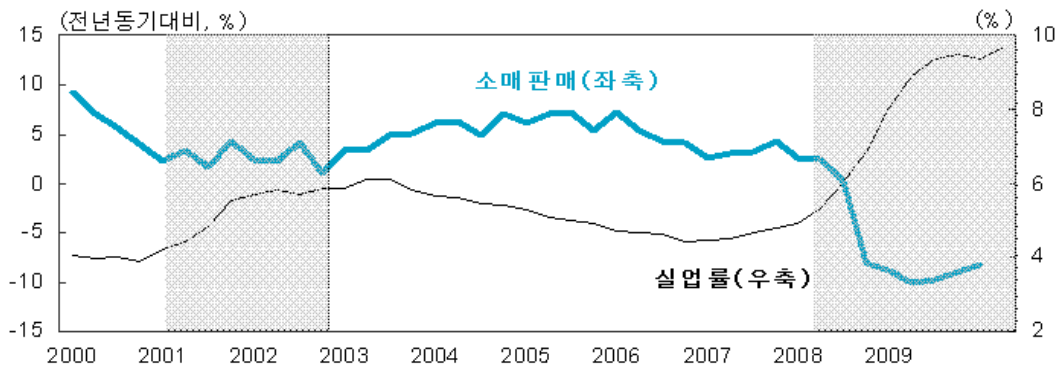
2) 실업률은 구직기간 4주 기준임.

부록: 최근 세계경제 동향

■ 선진국 동향: 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최근 경기 개선 조짐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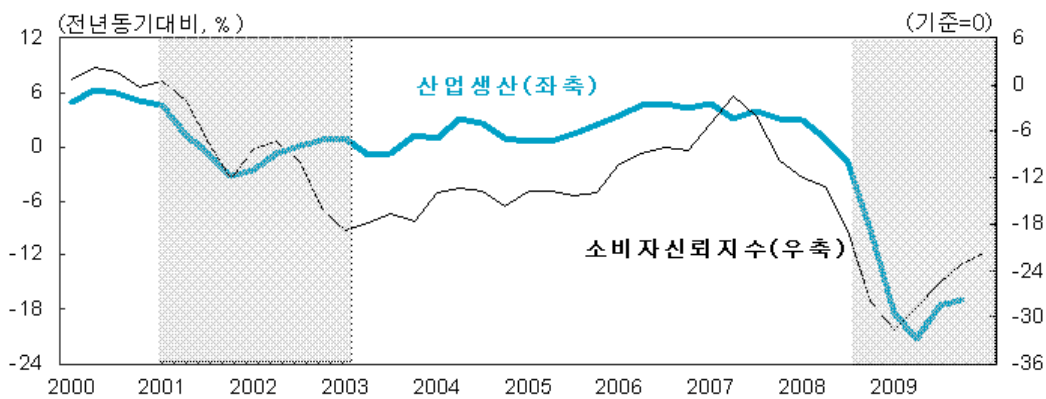
- 미국: 주요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고 주택경기와 소비 침체가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확산
 - 고용 부진의 영향으로 소비를 비롯한 경제지표들이 여전히 위축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나, 2/4분기 이후 고용 불안이 다소 진정되고 있는 모습

미국의 소매판매와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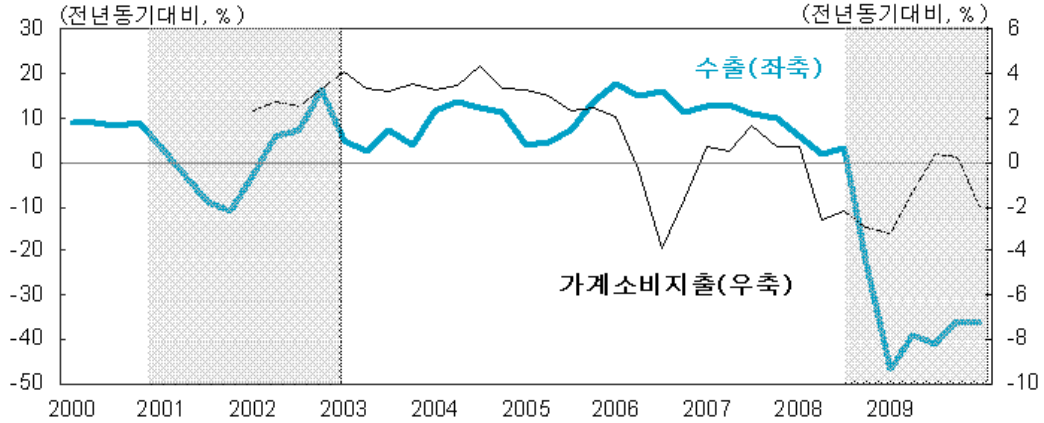
- 유로: 2/4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0.1%를 기록하는 등 내수 및 수출의 개선으로 산업생산의 감소세가 완화되고 소비자신뢰지수가 호전되고 있는 상황

유로지역의 산업생산과 소비자신뢰지수



- 일본: 민간소비 등 내수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나, 수출이 소폭 개선되면서 2/4분기 성장률(전기대비)이 플러스를 기록하는 등 경기 급락세가 진정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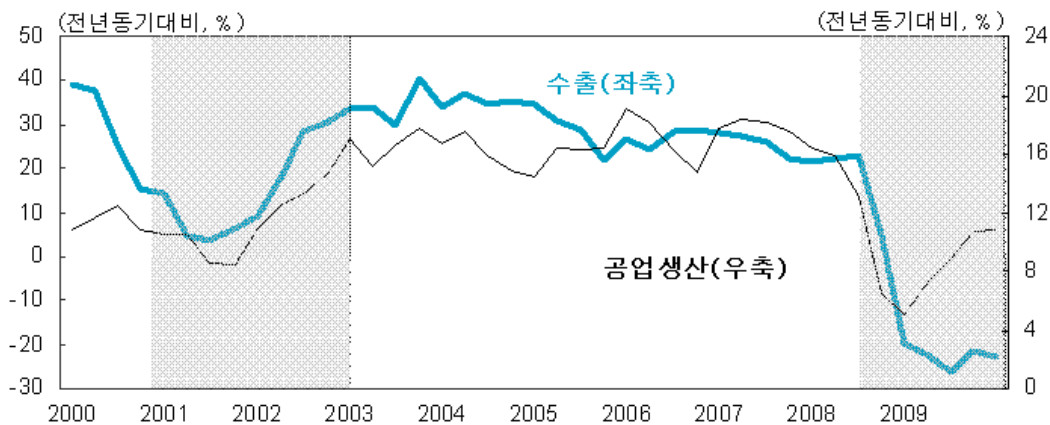
일본의 수출과 가계소비지출



- 개도국 동향: 생산과 수출의 감소세가 완화되고 내수도 증가세를 유지하는 등 전반적인 경기가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

- 중국: 주요 내수 경제지표의 성장세가 유지되고 수출 감소세도 진정되면서 경기가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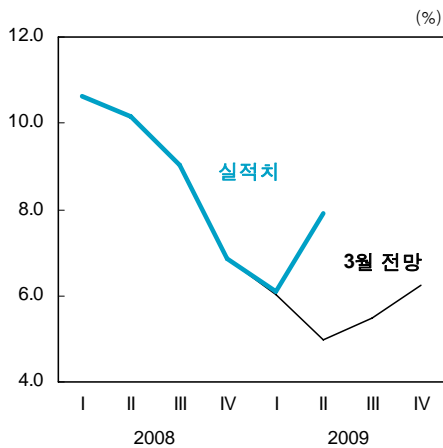
중국의 수출과 공업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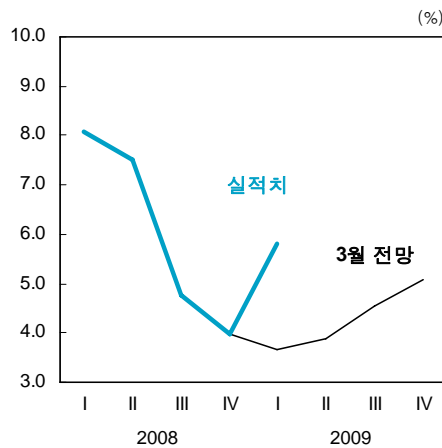
■ 세계경제의 최근 동향은 주요 신흥시장국의 경기 개선이 당초 예상되었던 것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반영

- 아래의 그림들은 지난 3월에 Global Insight가 발표한 각국의 2009년도 분기별 성장률 전망치와 최근까지 발표된 성장률 실적을 비교한 것임.
- 대부분의 아시아 신흥시장국들의 성장률이 3월 전망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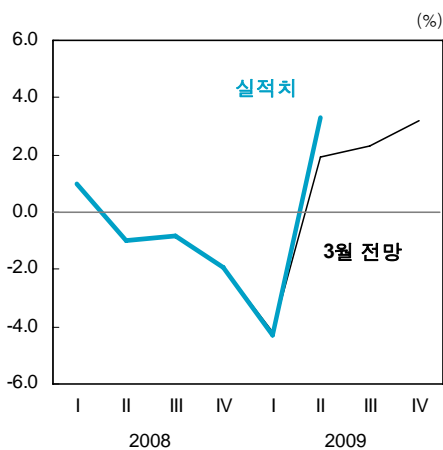
중국의 성장률(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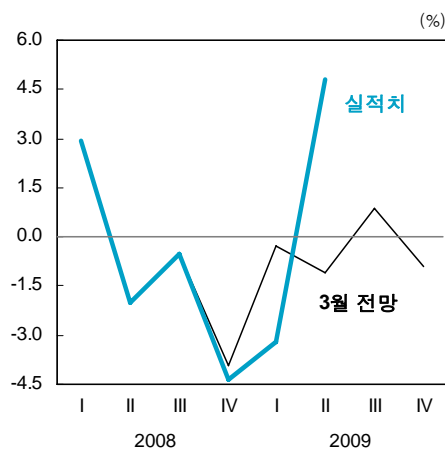
인도의 성장률(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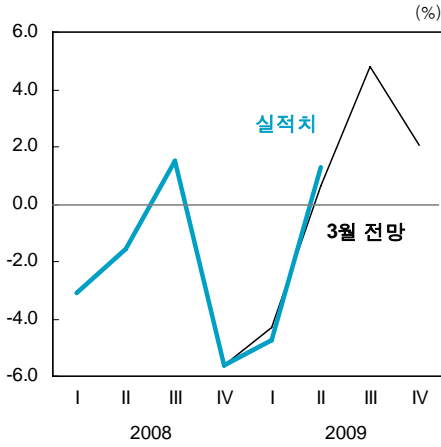
홍콩의 성장률(전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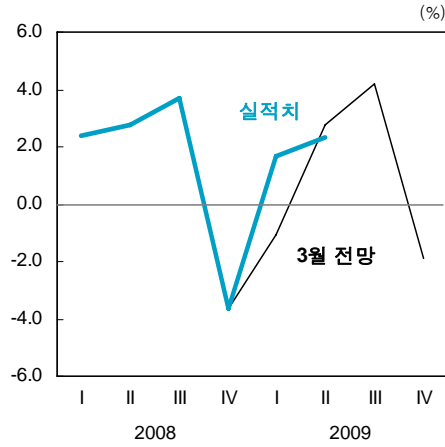
싱가포르의 성장률(전기대비)



대만의 성장률(전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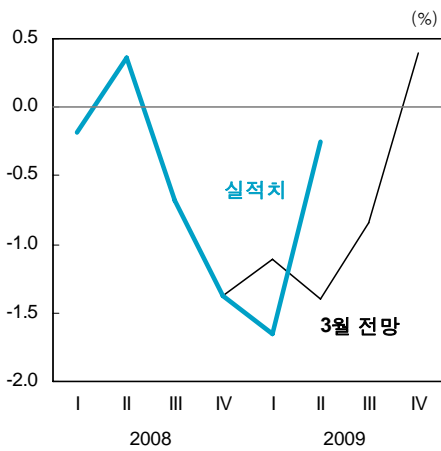
인도네시아의 성장률(전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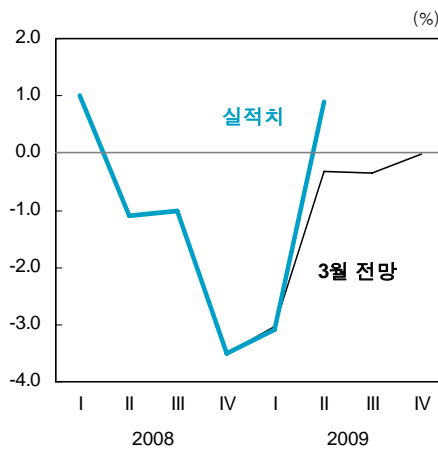
● 선진국의 경우에도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선진국들의 경기침체도 진정되고 있음을 시사

– 단, 영국 등 일부 선진국의 경우에는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낮게 나타나, 이들 국가들의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음을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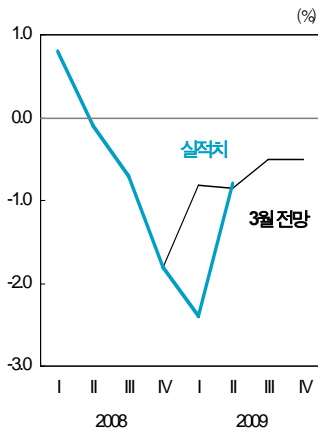
미국의 성장률(전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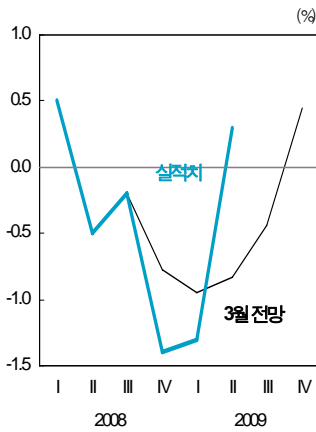
일본의 성장률(전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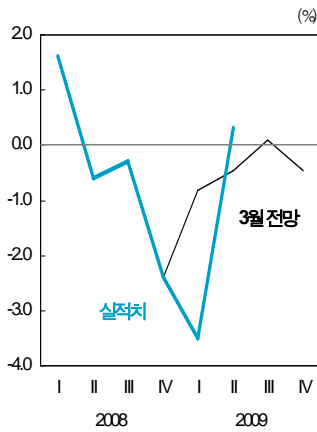
영국의 성장률(전기대비)



프랑스의 성장률(전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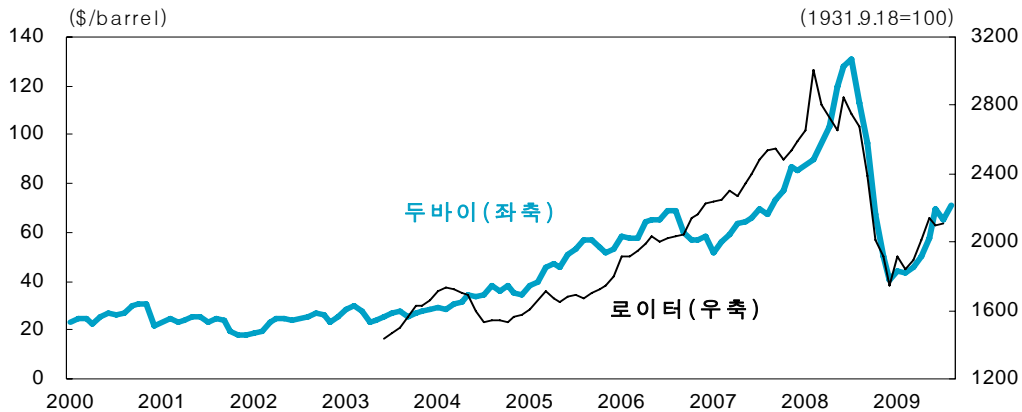
독일의 성장률(전기대비)



■ **국제유가 동향 및 전망:**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으나, 원유재고 증가 등으로 금년 국제유가의 상승세는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국제원유가격이 금년 초반 배럴당 40달러 수준에서 최근 70달러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승하였는데, 향후 유가 상승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가정할 경우 연평균 유가는 작년(100달러 내외)보다 크게 하락한 60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유가 및 원자재가격



주요 기관 유가 전망

(배럴당, 달러)

기관 (전망시기)	기준 유종	2008년 평균	2009년					2010년 평균	비고
			1/4	2/4	3/4	4/4	평균		
CGES (7월)	Brent	97.6	44.6	59.0	65.8	67.4	59.2 (53.1)	65.2	기준유가
		97.6	44.6	59.0	67.4	72.6	60.9 (58.4)	79.9	고유가
		97.6	44.6	59.0	54.6	44.1	50.6 (46.4)	51.8	저유가
CERA (7월)	Dubai	93.6	44.9	59.2	65.0	66.0	58.8 (51.1)	63.1	기준유가
	Brent	97.1	45.7	59.8	67.0	68.0	60.1 (52.8)	65.1	
	WTI	99.7	43.3	59.6	68.0	69.0	60.0 (52.6)	66.3	
	Dubai	93.6	44.9	59.2	75.0	80.0	64.8 (64.7)	88.4	고유가 (공급부족)
	Brent	97.1	45.7	59.8	78.0	83.0	66.6 (67.7)	90.4	
	WTI	99.7	43.3	59.6	79.0	84.0	66.5 (67.8)	92.0	
	Dubai	93.4	44.9	59.2	59.5	60.5	56.0 (47.4)	47.0	저유가 (수요감소)
	Brent	97.1	45.7	59.8	60.0	61.0	56.6 (48.4)	48.0	
	WTI	99.7	43.3	59.6	59.0	62.0	56.0 (47.0)	47.0	
EIA (7월)	WTI	99.6	42.9	59.5	67.4	70.0	59.9 (52.6)	72.4	기준유가
PIRA (7월)	Brent	97.0	42.4	58.8	65.9	67.8	59.2 (53.7)	78.7	기준유가
	WTI	99.6	43.0	59.6	64.8	68.7	59.0 (53.9)	80.0	

주: 1) CGES: 런던 소재 세계에너지센터(Center for Global Energy Studies).
 CERA: 美 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Cambridge Energy Research Associates).
 EIA: 美 에너지정보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PIRA: 석유산업연구소(Petroleum Industry Research Associates).

2) 2009년 ()안의 수치는 2009년 5월 전망시점의 유가전망치임.

자료: 석유정보망.